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6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15일(음력 6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유네스코 개최 부산 '불교문화'로 물든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기간인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사찰음식 만찬, 선명상 등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 홍보부스부터 사찰음식 만찬까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불도(佛都)' 부산이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로 채워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기간인 7월 19~29일 '한국불교 문화유산, 세계와 通하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불교 문화유산 홍보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하는 협약 당사국과 위원국을 비롯해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단체 등 전 세계 방문단에게 한국 불교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등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진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계종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내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서 유무형의 다양한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주제로 전시 및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와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한국의 산지승원 사찰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인 국행수륙재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7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국가 대표단 초청 '사찰음식 만찬' 행사를 부산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진행한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202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수행정신이 담겼다"면서 "이번 만찬 행사는 전 세계인에게 한국 사찰음식이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회의 참가자 대상으로 사찰음식 다과와 핑거푸드를 구성해 선보이는 'K-Dessert Day(한국의 사찰음식 맛보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같은 날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는 K-선명상의 위상과 가치를 전세계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도 이뤄진다. 또한 사전접수를 통해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범어사 등 세계유산 사찰 및 부산의 전통사찰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찰 데이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불교가 간직하고 있는 가치와 고유한 전통이 세계인들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한국불교가 보존·전승해 온 유무형 문화유산이 인류 공동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출가자로서 7일, 천년의 보배 같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5일 '바라밀 출가학교 제1기 회향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운문사가 주관한 이번 출가학교에는 13명이 참가해 6월 29일부터 6박 7일간의 교육과정을 전원 수료했다. 수료생 13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1명이 은퇴출가를 발

박지운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포교부

조계종 가사 제작 전통, 지식재산 보호

'가사 매듭 흐름' 저작권 등록
전통 불교문화 유산 전승 결실
2026년 4월부터 70년간 보호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전통 불교문화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며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 불교문화와 의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사의 매듭과 흐름에 관한 의식적 제작 기록'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전과 도제식으로 전승돼 온 무형의 불교문화 자산을 현대적 지식재산권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저작권 등록은 종단이 기존에 보유한 가사 관련 특허권에 더해 가사의 조형적 표현과 의식적 전통을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권이 제작 방법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가사의 매듭 구조와 흐름 등 예술적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특허권과 저작권을 병행하는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종단은 이를 통해 가사의 무단 도용과 모방을 예방하고, 전통 불교문화의 원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된 저작물은 불교 복식의 핵심인 가사의 고유한 제작 공정과 매듭법, 그리고 제작 과정에 담긴 의식적·전통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저작권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26년 4월 16일 등록을 마쳤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70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번 등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전통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아래 총무원 교육부와 가사원, 공인변리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종단은 이번 성과를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전통 문화유산 가치 제고' 정책의 실질적인 결실로 평가하고 있다.

소관부서인 총무원 교육부는 그동안 종단 통일 의제의 보급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계기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사 제작 전통을 종단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은 전통 불교문화의 가치를 현대적 제도 안에서 보존하고 상업적 도용과 전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서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전통문화 권리 보호와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임시회 7월 21일 개원

7월 9일, 간담회서 일정 합의
27명 소집 요구…개회 불투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7월 21일부터 5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장단이 임시회 불참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종회는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선우회장 보인 스님, 정법회장 탄원 스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 스님 4명만 참석해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탄원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7명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 개원 정족수는 재적의원 81명의 과반인 41명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① 총무원장 역할과 선출 방법 5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④ 불교 소모임이 뜬다 13면

지장보살 영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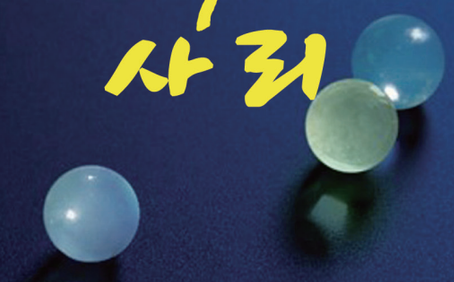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